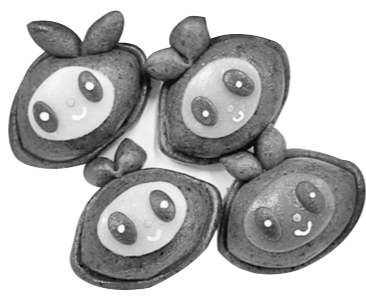


# ‘전통 디저트 혁신’ 영광군, 매운 모싯잎 떡 특허

### 모싯잎 캐릭터·K-매운맛 결합...청년층·신시장 등 공략 고추 등 특산물 활용...떡 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

영광군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떡 개발로 새로운 디저트 시장 공략에 나섰다. 6일 군에 따르면 최근 모싯잎과 고추를 활용한 ‘모싯잎 매운맛 개피떡’ 제조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개피떡은 찐 멥쌀가루를 얇게 펴 소를 넣어 만드는 전통 떡이다. 개피떡에 지역 특산물인 모싯잎에 매운 맛을 더한 특허 기술을 통해 기존 전통 떡의 한계를 보완하고, 젊은 세대의 입맛을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디저트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강렬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제품 디자인에도 변화를 줬다. 영광 모싯잎송편 마스코트인 ‘모싯’을 형상화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또 온라인 콘텐츠로 확산 가능한 캐릭터형 디저트로 기획해 젊은층은 물론 가족 단위 소비자까지 공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허 등록은 단순한 신제품 개발을 넘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침체된 지역 떡 산업의 구조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쌀 기반 디저트 개발을 통해 지역 떡 산업의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연계한 푸드테크 기반 산업화 모델 구축 가능성도 확인됐다. 군은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해 지역 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시제품 개발과 상품화 지원을 병행해 지역 대표 디저트 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제품의 명칭 및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 권리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특허는 전통 식품에 현대 소비 트렌드를 접목한 새로운 식문화 창출 사례로, 지역농산물 기반 디저트 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성과”라며 “기술 보급과 산업화를 통해 지역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이 최근 생활체육공원에서 개강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고흥군청

##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 개강’ 유소년 축구 교육 성지 기대

### 매주 수요일 1회 운영...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강화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이 최근 생활체육공원에서 개강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은 지역 유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축구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고

흥 지역 학생을 비롯해 보성, 순천, 여수 등 지역 학생 등 80여명이 축구교실을 신청했다. 올해 축구교실은 기본적으로 매주 1회 수요일 운영되며,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뉘어 60분간 수업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주 2회(화·목) 추가 운영에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혹서기(7~8월)에는 휴강하며, 5월과 10월에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후 11월까지 전문 코치진의 지도 아래 운영할 계획이다. 차범근 감독은 “축구교실의 목표는 선수 육성이 아니라 축구를 즐기며 스포츠 정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흥

지역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고흥민 군수는 “지난 3월부터 차범근 축구교실 꿈나무 육성사업을 위해 고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 30억원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며 “차범근 브랜드와 결합한 유소년 축구 교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순천, 농업인 편익 증진·행정 효율성 강화

### 광양시·농어촌공사와 공익직불사업 논의

순천시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에서 광양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정비 및 2026년 공익직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화, 직불금 감액 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전략작물 직불제 이행점검 적합률 향상 방안 등이 다뤄졌다. 시는 이번 협의회를 기점으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비의 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농업인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기관 간 정보 불일치로 인해 농업인들이 겪는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2026년 공익직불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감액 예방 안내와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참석한 각 기관 관계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협의회를 기점으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비의 정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대장 임대차 정보 불일치 정비,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방안, 2026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사업 홍보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익직불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농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영암, 교육발전특구 기반 AI 융합 교육 확대

### 글로벌 교육 모델 도입...초·중학생 대상 실습

영암군은 지역 미래를 이끌 첨단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2026 글로벌 AI 융합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또 오는 6월부터 독천초, 미암초, 학산초 등 초등학교로 확대해 디지털 트윈, 퍼지컬 AI, IoT 기초체현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월 국립목포대학교를 주관 대학으로 선정하고, 영암군 교육발전특구 전략사업인 DX 첨단 농업업 융복합 전공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과 교육, 산업이 연계된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기술을 갖춘 지역 인재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3월부터 영암남중학교를 시작으로 AI 스마트정원, 환경·공간데이터 등 정규 교과과정을 운영 중이며, AR·VR 기반 가상 현실 콘텐츠제작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복영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AI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봄 맞아 ‘화순 명소 버스킹’ 10월까지 매주 주말 운영

화순군은 봄을 맞아 오는 10월까지 지역 주요 관광 명소에서 ‘2026 화순 명소 버스킹’ 공연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자연형 코스’ 나주 지식천 자전거길 개통

### 시, 사업비 37억 투입...6.11km 구간 조성 완료

나주시가 지식천 자전거길 개통을 통해 영산강과 연계한 광역 자전거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여가와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명품 라이딩 코스를 선보였다.

총사업비 37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기존 영산강 자전거길과 연계한 또 하나의 명품 자전거길 조성이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전 개통으로 기존 영산강 자전거길 이용자들도 지식천 코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라이딩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총 6.11km에 달하는 지식천 자전거길 조성을 완료하고, 개통식을 개최했다.

지식천 자전거길은 유채꽃밭과 갈대밭, 철새 등 사계절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형 코스라이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식천 자전거길은 시민의 여가 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구간 개통으로 광주~나주~화순을 잇는 지식천 자전거길이 하나로 연결되며,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남평을 주요 상권을 지나는 구간이 포함돼 있어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화순군은 봄을 맞아 오는 10월까지 지역 주요 관광 명소에서 “2026 화순 명소 버스킹” 공연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6일 군에 따르면 버스킹 공연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10월까지 이어진다. 매주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꽃강길 음악분수대 앞에서 오후 7시 20분, 일요일에는 남산공원 무대에서 오후 7시부터 약 40분간의 공연이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우천과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공연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꽃강길 음악분수와 연계한 공연은 일몰 시간에 맞춰 화려한 분수 쇼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가 개통한 지식천 자전거길 코스. 사진제공=나주시청

공연 장르 또한 풍성하다. 통기타 가수들의 감성적인 포크송은 물론, 격조높은 클래식 앙상블, 어쿠스틱 밴드, 퓨전국악, 재즈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정석 문화예술과장은 “버스킹 공연을 통해 화순의 주요 명소가 예술과 휴식이 공존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가족, 연인과 함께 봄꽃과 공연을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 장성, 내달까지 ‘춘향제’ 순차 개최

### 필암서원·봉암서원 등 전통문화 계승

장성군이 지역 내 서원과 사우(祠宇) 일원에서 5월까지 순차적으로 춘향제를 연다.

이곳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립 교육기관이다. 장성이 배출한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년)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해 나갈 방침”이라며 “장성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99@

춘향제는 조선시대 유교 예법에 따라 매년 봄마다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올리는 제례다.

장성지역에선 유림과 군민들이 참여하는 전통문화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지난 3월 향교 석전대제를 시작으로, 3일 필암서원, 7일 봉암서원, 14일 오산창의사, 20일 죽림서원, 27일 가산서원에서 제를 올린다.

5월에는 1일 송계서원, 3일 고산서원, 6일 만곡사 등에서 제향이 이뤄진다. 4월 첫 춘향제가 열리는 필암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